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이 오랜 숙원이던 부동산사업에 뛰어든다.

3월 19일 국회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8일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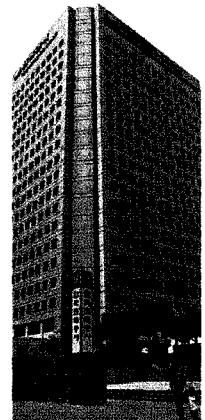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활용사업을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했다. 한전이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전이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옥내화, 지하화, 지중화 하는 등 환경 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전은 그러나 서울 삼성동 본사는 개발대신 매각하고 35개의 보유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따져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총 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해 41층 규모의 친환경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전, 부동산개발사업 뛰어 든다



한-UAE간의 원자력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UAE 정부 및 UAE 원자력공사 이사진 일행이 지난 3월 3일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UAE 참조 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UAE 방문단은 칼툰 알 무비락 행정청장, 쉐이카 루브나 알 까시미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 사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식경제부 문재도 자원개발 원전정책관과 변준연 한전 UAE 원전 총괄 부사장이 동행했다.

UAE 방문단은 신고리 제2건설소 APR플라자에 도착해 김종신 사장으로 부터 건설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UAE 원전 협력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간의 원전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뒤 UAE 방문단은 고리 원자력본부 전망대에 올라 건설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신고리 1호기 원자로 건물에 들러 주요 시설을 살펴본 후, 고리 3호기 주 제어실을 시찰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UAE 정부 및 UAE 원자력공사 이사진 신고리건설소 방문



LS전선, 고온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 美 AMSC社와 협약

LS전선이 미국의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와 손잡고 고온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에 나선다.

LS전선은 AMSC와 향후 5년간에 걸쳐 50km 이상의 고온 초전도 케이블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고온 초전도 케이블은 대량의 전기를 손실 없이 장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어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전선측은 AMSC사가 제공하는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활용, 케이블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송전과 배전용 전압은 물론 직류(DC)와 교류(AC)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포스코 ICT, 전기차 충전시스템 개발



포스코ICT가 포스코건설과 손잡고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와 관련한 특허를 최근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스마트미터기와 연동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충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충전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한 전기요금을 해당 가구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 집 안에서 충전상태를 모니터링·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기술을 분양 예정인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단지에 적용하고 추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15일,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건설공사) 낙찰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총 1조4천억 원 규모(추정가액)의 건설사업인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 입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현대(현대+SK+GS), 대우(대우+두산+포스코), 삼성(삼성+금호+삼부), 대림(대림+동아+삼환)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45%지분)을 대표사로, SK건설(30%지분)과 GS건설(25%지분)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신고리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시공에 대표사로 참여 중에 있으며, 국내 가동원전 20기 중 12기를 시공한 국내 최대 실적 보유 업체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외원전건설 사업인 UAE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SK건설은 현대건설과 함께 신고리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를 시공 중에 있으며 GS건설은 신월성 1,2호기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신울진 1,2호기는 금년 4월 부지정지공사에 착수, 오는 2016년 6월과 2017년 4월에 1, 2호기가 각각 준공될 예정으로 201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신울진 1,2호기 시공업체,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이 해외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을 진행키 위해 6억달러를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찌레본 사업 재원조달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은 총사업비 8억5000만달러 중 70%인 6억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입은행 등 국제 상업은행 4곳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조달받게 된다.

국내 발전사 가운데 해외발전사업을 위해 이 같은 형태로 자금을 융통한 건 중부발전이 최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이 투자에 나선 건 '찌레

한국중부발전, 발전자회사 최초 해외사업 재원조달



본 사업'이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8일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 에너지부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찌레본 발전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바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를 해소키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66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려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 국제입찰로 발주한 최초의 대형 민자발전사업이기도 하다.

찌레본발전소는 2008년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2대 주주로서 건설관리와 30년간 발전소 운영을 담당한다. 발전연료 공급은 삼탄이, 발전설비 설계·제작·공급은 두산중공업이 각각 맡는다.

한전 KPS, 비전 선포



한전KPS(사장 권오형)가 '2020년까지 녹색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발전정비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본사 대강당에서 선포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Globalization(세계화) 강화 ▲사업영역의 수평·수직 다각화 ▲Enabling(실행) 체계 구축 등 4대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케이디파워, 中 서안 세미나 개최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 회장)는 중국 서안 하얏트호텔에서 '2010년 케이디파워 스마트에코 IT 신기술 중국 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주 회장을 비롯해 케이디파워 전국 지사장, 협력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케이디파워는 이날 전국 지사장 및 협력사 관계자들 중 총 41명에 대해 '스마트에코 위윈'으로 위촉하고 미래 도전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현대중공업, PPS 기술력 진가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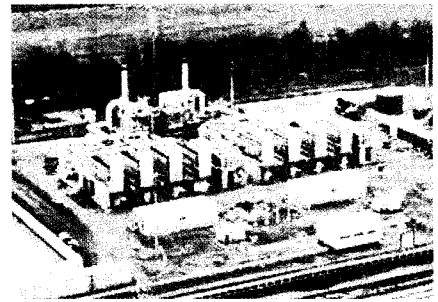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이동식발전설비(PPS)의 기술력이 아이티에 이어 칠레에서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했다.

현대중공업이 칠레에 설치한 이동식발전설비(PPS: Packaged Power Station)가 최근 진도 8.8의 강진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것이다. 이 설비들은 진앙지인 콘셉시온시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쿠리코(Curico)와 북동쪽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에 지난 2008년 10월과 2009년 5월 총 20.4MW 규모로 설치됐다.

특히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유명한 쿠리코 지역은 이번 강진으로, 주요 건물과 주택,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됐지만, 현대중공업의 이동식발전설비가 가장 먼저 전력을 공급하며 지진 피해 복구에 핵심 역할을 수행, 현지의 주목을 끌었다.

칠레는 지난 2월 27일 강진 이후에도 1주일 새 무려 2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식발전설비는 약 12미터 컨테이너 내에 엔진 등 발전기 구동에 필요한 설비들을 담은 소규모 패키지형 발전기로, 설치와 이동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한 중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이 해외법인 사무소 1호를 요르단에 세웠다.

남부발전은 요르단 현지에서 남호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법인인 'KOS PO/Jorda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부발전은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주한 37만3000kW급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을 따내기 위해 2008년 한전, 사우디 제넬(Xenel)사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 사업권은 그해 7월 남부발전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낙찰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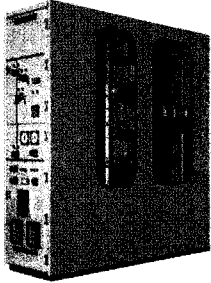
'요르단 알 카트라나 발전사업 프로젝트'로 명명한 이 사업은 총 4억6000만달러 규모이며, 한전이 80%, 제넬사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했다.

남부발전은 2011년 8월 발전소가 준공되면 25년간 운영과 정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난해 9월 8일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오는 6월 1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 요르단에 첫 해외법인 개설



LS산전, 25.8kV 고체절연 개폐장치 개발



LS산전이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에폭시 절연물을 적용한 친환경 25.8kV 고체절연 개폐장치(SIS:Solid Insulated Switchgear · 사진)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한전시장 공략에 나섰다.

LS산전은 3월 중으로 이 제품에 대한 한전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고체절연 개폐장치는 절연매질로 보편화돼 있는 SF6가스 대신에 에폭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SF6가스는 절연성이 뛰어나 일반적인 절연매질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라는 점에서 대체물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 왔다.

한전 INKE 초청 상담교류회



한전은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회장 홍병철) 21개 지부장을 삼성동 본사에 초청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상담교류회를 가졌다.

이 날 한전은 국내 중소기업이 보다 활발히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INKE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 INKE 지부장들은 각 지역의 사업 환경을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승진 · 임명



현대중공업은 12일 민계식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현대중공업은 그간 회장 없이 부회장과 사장이 함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총괄해왔으나 민 회장을 중심으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민 회장은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기술개발본부 본부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4년부터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아왔다.